

1. 다음 전시 유물을 처음 사용하였던 시대에 나타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옷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② 대부분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③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를 사용하였다.
 ④ 지배자가 죽으면 고인돌에 매장하였다.
 ⑤ 금속제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 활동을 하였다.

정답: ①

* 신석기 시대상

• 제시된 왼쪽 사진은 빗살무늬토기로 신석기 시대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들은 무늬가 없는 것, 토기 몸체에 덧띠를 붙인 것, 눌러 찍은 무늬가 있는 것으로, 각각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무늬 토기(압인문 토기)라고 부른다. 이런 토기는 제주도 한경 고산리, 강원 고성 문암리, 강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등에서 발견되었다.

① 농경 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

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대개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한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동굴이나 막집은 구석기 시대의 주거 형태이다.

③ 철기 시대의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나온 붓은 당시에 이미 한자를 쓰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④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이 중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군장)이 가진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⑤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평등 사회는 계급 사회로 바뀌어 가고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는데, 이런 지배자를 족장(군장)이라고 한다.

2. (가)에 들어갈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을/를 설치하고 2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이 모두 여기에 모여 회의하게 하였다. 의종, 명종 이래로 (가)의 권한이 더욱 커졌다. …… 고려가 끝날 때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 ①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② 무신의 최고 회의 기구 역할을 하였다.
- ③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④ 6부의 하나로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⑤ 최충현이 집권하면서 권력의 핵심 기구가 되었다.

정답: ②

* 고려의 무신 합좌 기구 중방

고려의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직업 군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지휘관은 상장군(정3품)과 부지휘관인 대장군(종3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방은 이들의 최고회의 기구로 의장은 정3품인 상장군 중응양군(최고 서열)의 상장군이 되었다.

특히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다수의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여 거제도로 귀양 보낸 후,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경대승, 최씨 정권은 사병인 도방을 중심으로 권력 행사).

①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면서 재신과 함께 국정을 총괄하는 추밀(2품 이상)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3품 이하)으로 구성되었다.

③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였다(재추 회의). 그러나 고려 후기 무신정변 이후에는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 문제까지도 관장하게 되어 도당(都堂)으로 불리게 되었다. 원의 간섭기 이후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며(1279), 그 구성원 수가 증가하여 귀족연합정치의 성격을 띠며 왕권을 제한하였다.

④ 고려 6부 중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은 병부(兵部)이다.

⑤ 고려 무신 정권기 최충현(1196~1219 집권)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 사병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3.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자료와 유적으로 본 (가)의 주거 생활〉

○ 자료(『삼국지』 위서 동이전)
사람들이 초가 지붕이 있는 토실(土室: 흙방)을 만들어 거주하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비슷하다. 출입문은 위에 있으며, 어른과 아이,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족이 토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 유적(공주 장선리)


- ①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다.
- ②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가(加)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존재하였다.
- ④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결속을 다졌다.
-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을 만들었다.

정답: ①

* 삼한(마한)에 대하여

제시된 자료인 마한의 토실(충남 공주 장선리)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 마한의 집 형태이다.

삼한은 공통적으로 신지, 견지, 읍차, 부레 등의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② 옥저는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④ 고구려는 10월에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⑤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 주는 것으로 8조의 법이 있었다. 그 중에서 3개 조목의 내용만 전해진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에 권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생겨나고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지면서 형벌과 노비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노동력과 사유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연보

- 진평왕 26년: 이찬(伊漣) 김용준의 아들로 태어났다.
- 선덕왕 11년: 대야성 전투 후 고구려에 동맹을 요청하러 갔다.
- 진덕왕 2년: 당에 건너가 태종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약속 받았다.
- 진덕왕 8년: 상대등 알천 등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 △△왕 7년: (가)
- △△왕 8년: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던 중 59세로 죽었다.

- ①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세웠다.
- ②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진압하였다.
- ③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 ④ 불교를 공인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⑤ 기벌포 전투에서 당의 수군을 물리쳤다.

정답: ③

* 신라 김춘추(무열왕)에 대하여

나당동맹을 성사시킨 것을 통해 김춘추(602~661)임을 알 수 있다.

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로 진골로 격하된 배경 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같은 진골이지만 멸망한 금관가야 출신의 김유신과 결탁하여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첫 왕이 되었다(654).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되어 그의 딸과 사위가 죽게 되자(642) 고구려와 동맹하여 백제를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감금당하고 탈출하여 나당동맹을 성사시켰다(648).

나당동맹군은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으나 이듬해 무열왕이 죽고, 아들 문무왕(661~681)이 계승하여 고구려 멸망(668)과 나당전쟁 승리(676, 기벌포 전투 승리)를 통하여 삼국통일이 완성되었다.

①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에 나섰다. 먼저, 신라는 백제의 옛 땅을 찾기 위해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을 이용하여 당 침략군을 몰아내려고 한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의 왕족 안승으로 하여금 금마저(전북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674). 보덕국은 고구려 관제를 사용하며 신라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나당전쟁이 끝나며 삼국통일이 완성된 후 신문왕의 신라 융합 정책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다 진압되며 소멸되었다(684).

②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④ 법흥왕(514~540)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527)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5. (가), (나) 비석을 세운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당의 침입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 ② (가) -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나) -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 ④ (나) -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⑤ (가), (나) - 한강 유역을 놓고 서로 전쟁을 벌였다.

정답: ③

* 최전성기를 이끈 장수왕과 진흥왕

(가) 광개토대왕릉비

(나) 진흥왕 황초령 순수비

광개토대왕의 위업을 계승하여 고구려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왕은 장수왕이었다. 그는 부왕인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를 세워 그 업적을 기리었고(414), 영토가 넓어지자, 다시 안으로 체제를 정비할 필요를 느낀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옮기고(427),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에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였는데, 고구려의 침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백제였다. 장수왕은 3만의 군대를 보내 백제를 쳐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475).

이 때의 고구려 영토는 아산만에서 소백 산맥을 넘어 영일만을 연결하는 지역에까지 미쳤는데, 이러한 사실은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다.

신라는 6세기 진흥왕(540~576) 때에 이르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흥왕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562).

특히, 백제 성왕과 공동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를 확보하고, 다시 한강 전체 패권을 놓고 싸운 끝에 관산성에서 승리한 후 한강 전역을 장악함으로써(554)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항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북한산, 창녕, 마운령, 황초령)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① 고구려 보장왕(642~668) 때에 당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자,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 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시성(성주 양만춘)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② 고구려 미천왕(300~331) 때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 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④ 신라 지증왕(500~514)은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

6.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따사로운 봄이 한창입니다. 었드려 바라옵건대 청해진에 계신 장보고 대사님의 심신에 복이 깃들기를 비웁니다. 덕분에 부족한 이 사람은 대사님께서 세우신 적산 법화원에 무사히 도착하여 잘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즐겁다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일본국 구법승 엔닌 올림

- ① 귀국길에 문방구를 사가는 요의 관리
- ②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는 발해 상인
- ③ 산둥 반도의 발해관에 머무르는 발해 사신
- ④ 남해안에 출몰하는 해적을 격퇴하는 신라 수군
- ⑤ 빈공과 응시를 위해 중국으로 가는 신라 유학생

정답: ①

* 장보고가 활약한 남북국(통일신라와 발해) 시대의 모습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846)는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장보고는 당시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산둥성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짓고 이 곳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아울러 신라인의 친목과 단결, 안녕을 꾀하는 정신적 위안처로 만들었다. 중국을 순례하던 중에 법화원에서 신세를 진 일본의 승려 엔닌에게 일본으로 돌아갈 배편을 구해 준 적이 있었다. 이 때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엔닌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명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높아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서남해안 일대의 커다란 해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이 세운 요(916~1125)는 고려 전기에 존속했던 나라는, 모피, 말 등을 수출하고 농기구, 곡식, 문방구 등을 수입하였다.

②, ③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특히,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일본과의 무역도 규모가 한 번에 수백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하였다.

⑤ 신라 말에는 6두품 출신으로 외국인을 위한 과거 전형인 당의 빈공과에 합격한 이들이 많았다. 최치원, 최승우(견훤의 책사), 최연위(왕건의 책사) 등이 유명하다.

7. 다음 자료가 저술된 시기의 사상 동향으로 옳은 것은? [2점]

근래 부세가 무겁고 관리가 탐학하여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없어서 모두가 난리가 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요망스러운 말들이 동쪽에서 부르짖고 서쪽에서 화답하니, 이들을 법률에 따라 죽인다면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목민심서」 -

- ① 9산 선문이 성립되었다.
- ② 서경 길지설이 유행하였다.
- ③ 해동 천태종이 창시되었다.
- ④ 수선사 결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⑤ 정감록 같은 비기가 유행하였다.

정답: ⑤

* 세도정치기(19세기 전반)의 사상 동향

출전이 정약용의 목민심서(1818)이고 무거운 부세와 탐관오리들에게 백성들이 시달리는 것을 통해 ‘세도정치기’임을 알 수 있다.

세도정치기(1800~1863)에 지배층과 농민층의 갈등은 깊어지고,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농민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농민의 의식은 점차 높아져 곳곳에서 적극적인 항거 운동이 일어났다(1811년 홍경래의 난).

그런데도 탐관오리의 탐학과 횡포는 날로 심해 갔고, 재난과 질병이 거듭 되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 농민의 생활은 그만큼 더 어려워져 갔다.

이렇듯 사회가 변화하면서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록은 이때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여기에 무격 신앙이나 미륵 신앙도 점차 확장되어 갔다. 현세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을 미륵 신앙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며, 심지어 살아 있는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서민을 현혹시켜 끌어모으는 무리도 나타났다.

① 신라 말에는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 달리,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음 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선종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고 지방 호족과 결합하여 각 지방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9개의 선종 사원이 9산 선문이다.

②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서경 천도와 복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길지설은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적 투쟁에 이용되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③ 고려 중기(11세기)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1055~1101)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④ 고려 무신 집권(1170)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지눌(1158~1210)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8.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스스호 2013년 7월 20일

8세기 금동불 입상 발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복원을 위해 해체 작업 중인 (가)의 기단 속에서 금동불 입상 1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불상은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탑이 조성된 742년에 놓은 *진단구로 보인다. 한편 (가)에서는 1966년 보수공사 중 세계 최고(最古)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바 있다.

* 진단구(鎭壇具): 건물의 기단 등에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묻은 각종 물건

▲ 금동불 입상



정답: ④

*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동불이 출토된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은 묘법연화경(법화경)의 세계를 다보여래(과거불)를 상징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국보 20호)과 기단이나 탑신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역사적 불)를 상징하는 석가탑(불국사 3층 석탑, 국보 21호)으로 구현하였다.

특히 1966년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최근인 2013년 7월에는 기단부에서 진단구(鎭壇具: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건물의 기단 등에 넣은 물건)로 보이는 금동불 입상이 출토되었다.

① 월정사 8각 9층 석탑(국보 48호): 강원 평창 월정사 소재. 통일 신라 때의 4각 3층 석탑을 넘어서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다각다층탑이 고려 전기에 유행하는데 그 전형을 보여 준다. 송에서 유행하던 8각탑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②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 충남 부여 소재.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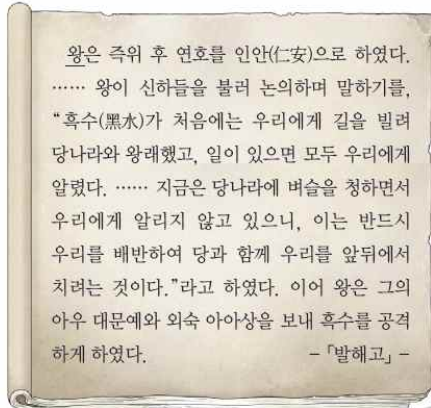
③ 다보탑(국보 20호): 역사적 부처인 석가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자,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나타나 석가여래의 말이 참됨임을 입증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여준다.

④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국보 21호)

⑤ 진전사지 3층 석탑(국보 122호): 전형적인 통일신라기의 3층 석탑이나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이름이 나있다. 진전사는 선종을 도입한(821) 도의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어 9세기 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9.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만주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 ② 장문휴를 보내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 ③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진부로 옮겼다.
- ④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였다.
- ⑤ 요동 지방에 진출하는 등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정답: ②

* 발해 무왕에 대하여

연호가 '인안'이고 흑수 말갈을 공격한 것을 통해 2대 무왕인 것을 알 수 있다.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719~737)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또,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문왕(737년~793년)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것은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818~830)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도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1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지금 군읍(郡邑)은 모두 도적의 소굴이 되었고, 신천은 모두 전쟁터가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재앙이 우리 해동에만 흘러드는 것입니까! - 『동문선』 -
- 나라 안의 여러 주군(州郡)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 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별때처럼 일어났다. 이 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 『삼국사기』 -

<보 기>

- ㄱ. 관료진이 지급되고 녹읍이 폐지되었다.
 ㄴ. 몰락한 농민들이 유랑하거나 초적이 되었다.
 ㄷ.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ㄹ.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신라 말의 사회 모습

원종, 애노의 농민 반란(889) 등을 통해 신라 말 상황임을 알 수 있다

8세기 말 이후 귀족들의 정권 다툼(왕위 쟁탈전)과 대토지 소유 확대로 백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지방의 토착 세력과 사원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유력한 신하 세력으로 성장해 갔다. 지방의 자영농들은 귀족들의 농장이 확대되면서 몰락해 갔다. 더욱이 중앙 정부의 통치력 약화로 대토지 소유자들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농민이 더 많은 조세를 감당하게 되었다.

9세기 이후 자주 발생한 자연 재해는 농민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무장조직이 결성되었고, 이들을 아우른 큰 세력가가 호족으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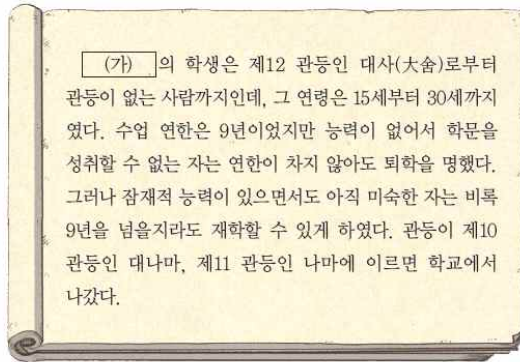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소작농이 되거나 고향을 버리고 떠돌게 되었다. 결식을 하거나 산간에서 화전을 일구기도 하였으며,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도적화되어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9세기 말 진성 여왕(887~897)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 갔다.

㉠, ㉡ 7세기 후반 통일 이후 신라는 강화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왕권을 전제화하였다. 태종 무열왕(654~661)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통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이 때부터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나아가, 왕명을 받들고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던 상대등의 세력을 억제하였다. 이로써 통일 이후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화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687),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하기도 하였(689)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11. (가)에 들어갈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 ②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 ③ 지방 관리와 서민의 자제를 교육하였다.
- ④ 국자학, 태학, 사문학의 유학부가 있었다.
- ⑤ 박사와 조교를 두고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정답: ⑤

* 통일신라기의 유교 교육기관 국학(國學)

관동이 대사, 대나마, 나마 등임을 통해 신라의 교육기관임을 알 수 있다.

통일 직후기의 신문왕(681~682)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국학에는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필수 과목)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이것은 충효 일치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었다.

과정	과목
1과정	예기, 주역, 논어, 효경
2과정	춘추좌씨전, 모시, 논어, 효경
3과정	상서, 논어, 효경, 문선
산학(잡학)	천문·역·산술·의학

입학 자격은 대사(12등급) 이하의 자제이고, 나이는 15세에서 30세까지 입학(수학)할 수 있었다. 9년을 기한으로 하되, 만일 능력이 부족하여 향상치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고, 재질은 성취할 만하되 미숙한 자는 9년을 넘어도 재학케 하였으며, 졸업자의 관위는 대나마나 나마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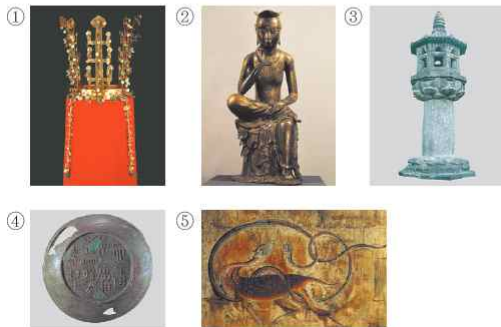
①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이 중 문종 때 최충이 세운 9재 학당은 12도 중에서 가장 번성하여 명성이 높았다. 최충이 사망한 후 그의 시호인 문헌을 이름으로 붙였다.

② 조선 시대의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③, ④ 고려는 중앙에 국립 대학으로 국자감(국학)을 설치하였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같은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입학하고,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12. 다음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난 사상과 관련된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천존상과 도사들을 고구려에 보내어 「도덕경」을 강론하니 왕과 도사와 일반 사람들로써 참관한 자가 수천 명이였다.
- 백제 장군 막고해는 고구려군을 쫓아가는 태자에게, “일찍이 듣건대 무엇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 무위(無爲)의 일에 처하여 불언(不言)의 가르침을 행함은 주나라 주사(柱史)의 뜻이다.



정답: ⑤

* 도교 사상과 관련된 고대 유물

도교의 경전인 도덕경, 안분지족(安分知足)의 마음가짐, 풍류도 중 무위(無爲)의 자세 등은 모두 도교와 관련이 있다.

삼국에는 도교도 전래되어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으며, 백제 금동 대향로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① **금관총 금관(국보 87호)**: 최초로 발견된 신라 금관인 금관총 금관은, 미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워 신라 금관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관테 위에 '출(出)'자 모양의 3개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과 2개의 사슴뿔 모양 장식을 덧붙인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뭇가지 모양 장식의 가지는 황남대총 북쪽무덤 및 서봉총 금관과 같이 3단으로 되어 있다.

②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83호)**: 삼산관을 쓴 이 불상은 날씬한 몸매와 그윽한 미소로 유명하다. 삼국말기의 양식으로서 신라 또는 백제의 작품으로 불분명하다.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이를 본 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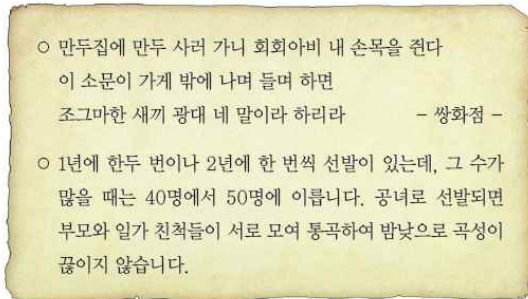
③ **발해 석등**: 상경(흑룡강성 영안현)에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이 석등은 높이가 6m에 이르는 웅장한 모습으로 고구려의 기상을 느끼게 하는 발해 석조 미술의 대표로 꼽힌다.

④ **호우명 그릇**: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그릇 밑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⑤ **사신도 중 '현무도'**: 평남 강서에 소재한 강서 대묘에 있는 사신도의 하나로, 현무도는 북쪽 방위신이다.

1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문종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가 세워졌다.
- ② 만적을 비롯한 천민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 ③ 변발, 몽골식 복장 등이 지배층 사이에 유행하였다.
- ④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 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답: ③

* 원의 간섭기(1270~1351) 때의 사회모습

제시된 자료인 고려 후기 속악 가요 '쌍화점'과 공녀 차출을 통해 원의 간섭기(1270~1351)임을 알 수 있다.

• 원의 간섭기 때에 몽고인·중국인·아랍인·인도인 등을 위시한 수많은 이민족들이 고려에 진출하여 개성을 위시한 주요 지방에 널리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에 유행하였다는 쌍화점의 가사는 개성에 회회아비(서역 이슬람인)이 가게를 열고 있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 원의 간섭기에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히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 몽골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이와 반대로 고려 사람이 몽골에 건너간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전란 중에 포로 또는 유이민으로 들어갔거나 몽골의 강

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이었다. 이들에 의하여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의 풍습이 몽골에 전해졌는데, 이를 고려양이라 한다.

원의 공녀 요구는 고려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결혼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간 여인 중에는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러므로 공녀의 공출은 고려와 원 사이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고려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① 조선 후기에 양반은 군현을 단위로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종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가 많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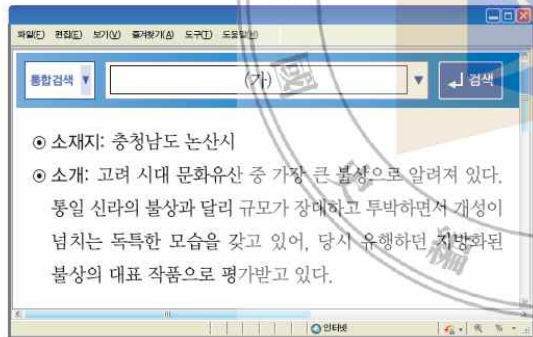
②, ④ 무신 집권기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에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자 견디지 못한 백성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명종 때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 봉기이다(1176).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1198).

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나갔다.

14. (가)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①

*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난 고려 시대의 대형 석불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고려 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보물 332호, 현재는 하남 하사창리 소재)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보물 218호, 10세기)이나 파주 용미리 이불 입상(보물 93호), 안동 이천동 석불(보물 115호)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도 조성되었다. 또,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국보 45호)같이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걸작도 있다.

- ①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 ②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 ③ 광주 춘궁리(하남 하사창리) 철불
- ④ 경주 석굴암 본존불
- ⑤ 파주 용미리 이불 입상

16. 다음 조서에 따라 설립한 교육 기관으로 옳은 것은? [1점]

세상 형편을 돌아보건대, 부강하고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이 개명(開明)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개명하는 것은 교육이 잘 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 짐은 정부에 지시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신민(臣民)이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게 하겠다.

- 「고종실록」 -

- ① 동문학
- ② 원산 학사
- ③ 배재 학당
- ④ 신흥 무관 학교
- ⑤ 한성 사범 학교

정답: ⑤

* 교육입국조서와 관립학교의 설립

보기의 자료인 교육입국조서는 2차 가보개혁 시기인 1895년 2월 고종이 조칙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 조서이다. 근대식 학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4년 6월 학무아문을 두고 새 학제를 실시하여 관학을 세우고, 1895년 1월 선포한 '홍범 14조'의 제 11조에서 외국유학과 새로운 학문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전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교육조서가 최초의 것이다.

이 조서는, 교육은 국가 보존의 근본이며,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실용을 추구하며,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덕육·지육·체육을 들고, 교육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중흥과 국가보존에 직결된다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이 교육조서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4월 최초의 근대식 학교법규라 할 수 있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였다. 이어서 1904년까지 외국어학교 관제, 성균관 관제, 소학교령, 한성사범학교 규칙, 소학교 규칙대강, 보조공립학교 규칙, 의학교 관제, 중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규칙, 농상공학교 규칙이 공포되어, 이들 관제에 해당하는 관립학교가 설립되었다.

①, ②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1883년 봄,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어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고, 같은 해 8월, 정부는 외국어 통역관 양성을 위해 동문학을 세웠다.

③ 개항 이후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최초의 학교는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재학당(1885, 감리교)과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당(1885, 장로교) 이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은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한 이화학당(1886, 감리교)이다.

④ 서간도 지역의 신민회 회원들은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17. 다음 상소문을 수용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지난 다섯 왕께서 하신 정치와 교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사적을 삼가 기록하여 거울 삼을 만한 일, 경계할 만한 일들을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 저는 비록 어리석으나 국가 중직에 있으면서 진언할 마음도 있었고, 또 회피할 길도 없으므로 당면한 시국 대책 28개 조항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 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② 향리제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였다.
- ③ 5도와 양계를 설치하여 지방 행정을 정비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⑤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정답: ②

*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한 고려 성종의 정책

고려 성종(981~997)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982).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은 먼저 지방관을 파견(12목 설치)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 하였다. 또한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

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어서 성종은 중앙의 통치 기구를 개편하였다. 당의 제도를 받아들인 2성 6부제를 기반으로 하고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다. 뒤에 송의 관제를 받아들여 중추원과 삼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세 계통의 기구들이 어우러진 고려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① 광종(975~981)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기반을 확대하는 등 왕권강화 정책을 펼쳤다.

③ 고려의 지방 제도인 5도 양계 체제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예종(1106~1122) 때이다.

④ 태조(918~943)는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⑤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은 충렬왕 원년(1275)에 원의 간섭으로 관제를 고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국학으로 개칭되었고, 충렬왕 24년(1298)에 충선왕이 한때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성균감(成均監)이라 고쳤고, 그 후 충렬왕 34년(1308)에 충선왕이 재즉위하여 다시 관제를 개혁하면서 성균관(成均館)이라 고쳤다.

성균관은 공민왕 5년(1356)의 배원정책과 함께 원의 간섭으로 격이 낮춰져 개편되었던 관제를 문종 때의 것으로 복구시키는 가운데 다시 국자감이라 고쳤으나, 동왕 11년(1362)에 이를 다시 성균관이라 고쳐 그 명칭은 그 후로 고정되었다.

18.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 ②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반영하였다.
- ③ 자주적 입장에서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 ④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⑤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체에서 편찬하였다.

정답: ②

* 우리나라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 삼국사기

보기의 자료는 기전체 역사서로 삼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인종 때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고구려 계승 의식으로 추정되는 역사서)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으며, 신라 계승 의식이 많이 반영되었다.

기전체란 사마천의 사기와 같이 역사를 본기(황제의 역사), 세가(제후의 역사), 지(사회.경제사), 열전(신하들의 역사), 연표 등으로 나누어 편찬하는 형식이다.

①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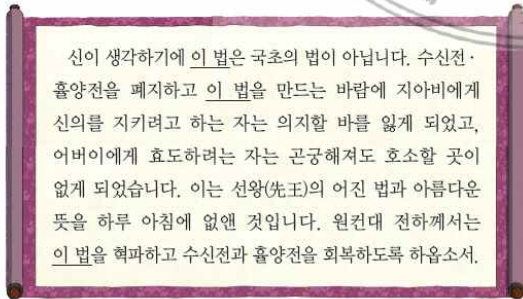
③ 조선 태조 때, 정도전은 편년체의 고려국사(1395)를 편찬하여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후에도 고려 시대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은 계속되어 15세기 중엽에 기전체의 고려사(1451, 정인지)와 편년체의 고려사절요(1452, 김종서)가 완성되었다.

④ 조선은 우리 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을 국초부터 하여 성종 때에 동국통감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이 편찬하였다(1485).

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의 편찬에 힘썼다. 조선 시대에는 실록의 편찬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실록의 편찬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계속되었다

실록은 한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실록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19.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두었다.
- ② 풍흉에 상관없이 4두의 조세를 거두었다.
- ③ 관리가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하게 하였다.
- ④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⑤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정답: ③

* 직전법(1466~1556)

제시문의 건의에 수신전과 홀양전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직전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여 과전법을 실시하였다(1391).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수절미망인 대상), 홀양전(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식 대상)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산직(散職: 현직 및 실직이 아닌 직)자와 수신전·홀양전에 의한 토지분급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분급되는 토지의 결수를 크게 줄였다. 그러나 16세기 중엽에는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 토지제도인 직전제를 폐지하였다(1556).

① 조선 시대에 조세(공·사전의 경작농민이 수조권자인 국가나 전주 관료에게 내는 것으로 전세라고도 하며 1/10이 원칙이다)는 과전법의 경우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법(貢法)을 마련하였다(1444).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 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는 전기의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④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국가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시정 전시과, 998).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지급량을 줄이고,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경정 전시과, 1076).

20. (가)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민생 안정을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 ②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③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제제를 시행하였다.
- ④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벌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⑤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신환국을 일으켰다.

정답: ①

* 영조의 정책

생모가 숙빈 최씨이고, 탕평책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통해 영조임을 알 수 있다.

숙종 때 시작된 탕평 정치는 영조(1724~1776) 때 자리잡았다. 영조는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완)론 탕평. 그리고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론의 주재자로서 인식되던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그러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이후 정조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영조가 탕평 정치를 실시하면서 왕은 정국의 운영이나 이념적 지도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붕당의 정치적 의미는 차츰 줄어들었다. 정국이 안정되자, 영조는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균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고(1750),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도 정리하였다. 그러나 영조의 탕평책은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

② 정조(1776~1800)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1785)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③ 조선 초 태조(1400~1418)와 세조(1455~1468)는 6조에서 의정부로 거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제제를 실시하였다.

④ 효종(1649~1659)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다.

⑤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한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유악 사건을 빌미로 한 최초의 환국인 경신환국을 주도하였다(1680)

21. (가)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주인에게 해마다 신공을 바쳤다.
- ② 중류층에 속하며 남반이라 불렸다.
- ③ 수공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였다.
- ④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 ⑤ 천민 신분으로 분류되며 지방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하였다.

정답: ④

* 고려의 특수 부락 ‘소(所)’

고려 시대에는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일반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향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을, 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을 주된 생업으로 하였다.

① 고려의 사노비는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구분되었다. 솔거 노비는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로서 주인의 집에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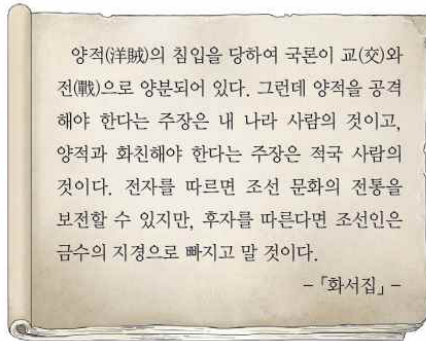
면서 잡일을 돌보았으며,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로서 주로 농업 등의 일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②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은 지배 기구의 말단 행정직으로 존재하였는데,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잡류, 궁중 실무 관리인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군반, 지방의 역(驛)을 관리하는 역리 등이 있었다.

③ 고려 시대에 수공업에 종사하는 양인들을 공장(工匠)이라 하고 공장안(工匠案)이라고 하는 별도의 호적에 기재하여 파악하였다. 공장안에는 국가의 여러 관청에 전속되어 있는 관속공장과 그렇지 않은 비관속공장들까지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전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액수의 현물급료와 토지를 지급받았다. 후자는 상당한 기간 국가에 요역을 바쳐야 했지만 전속되어 있지는 않았다.

⑤ 고려의 공노비에는 궁중과 중앙 관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 입역 노비와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농경을 하여 얻은 수입 중에서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였다.

22. 다음과 같은 대외 인식을 지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문명개화론에 사상적 바탕을 두었다.
- ② 흥선 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였다.
- ③ 박규수의 영향을 받은 양반 자제들이 많았다.
- ④ 일본에 조사 시찰단으로 가서 선진 문물을 견학하였다.
- ⑤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정답: ②

* 위정척사 세력

자료 출전은 병인양요 당시 위정척사 세력의 태두인 화서 이항로의 척화주전의 상소이다.

1860년대: 천주교가 유폐되고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어지자 유생들은 외국과의 교역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천주교의 확산에 따른 미풍양속의 파괴 등을 들며 통상 반대론을 내세웠다.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기정진, 이항로 등은 서양의 무력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 주전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주장은 유생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으며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1870년대: 일본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자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은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개항 반대론을 주장하였다. 일본이 서양에게 이미 문호를 개방하였으므로 서양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는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

1880년대: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책략'을 유폐하고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유생들은 집단 상소를 올려 반발하였다.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1890년대 이후: 1890년대 이후에는 명성 황후 시해와 단발령 실시에 항거하여 대대적으로 의병(을미의병)을 일으키며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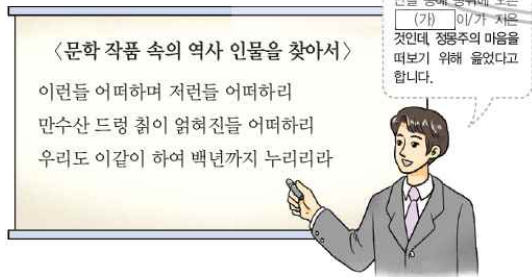
①, ③, ④, 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민영익, 유길준 등 젊은 양반 지식인들은 박규수와 오경석, 유대치 등의 통상개화론들로부터 개화에 대한 지식을 었다. 그리하여 문호 개방을 전후하여 개화파라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다. 개화파는 정계에 진출하여 정부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선 정부가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이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할 건의하였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케 하였으며, 일본(조사시찰단)과 청(영선사), 미국(보빙사)에 사절단을 보내 신식 문물을 배우게 하였다.

이들 중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문명개화론에 영향을 받아 급진개화파를 형성하고, 민영익, 김홍집, 김윤식 등은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동도서기론의 입장의 온건개화파로 분화되었다.

23.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훈민정음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 ② 홍문관을 두어 경연을 강화하였다.
- ③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사병을 없애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 ⑤ 4군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태종의 업적

하여가를 통해 정몽주를 살해한 이방원(후일 태종)임을 알 수 있다.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써 정몽주를 제거하여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으며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1398, 1400)을 통하여 정도전 등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1400~1418)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태종은 6조에서 의정부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으며,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다. 또,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호패법을 실시하였고,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아울러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①, ⑤ 태종의 3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세종(1418~1450)은 조선 한자음의 혼란을 줄이고 피지배층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양반 중심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였다(1446).

②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후일 덕종으로 추존)의 2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성종(1469~1494)은 홍문관을 두어 관원 모두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함으로써 집현전을 계승하였으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도 다수 경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세종 이후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곧, 김종서, 항보인 등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이 넘어가자, 세종의 2째 아들인 수양 대군은 이들을 제거하는 정변(계유정난, 1453)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단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1455).

24. (가)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아! (가)은/는 본시 모두 사대부였는데, 의(醫)에 들어가고
또는 역(譯)에 들어가 7·8대나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사람들이
중촌고족(中村古族)이라 일컫게 되었다. 문장과 덕은 비록 사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명공·거실 외에 우리보다 나은 자는 없다. 비록
나라의 법으로 급한 바 없으나 청요직에 진출하지 못하여 수백 년
원한이 쌓여 있고, 이를 호소할 기약조차 없으니 이는 무슨 죄악이며
무슨 업보인가? — 「상원과방」 —

—<보 기>—
ㄱ. 종모법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다.
ㄴ. 유향소를 통해 향촌 자치를 주도하였다.
ㄷ. 신분 상승을 위해 소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ㄹ. 시사(詩社)를 결성하여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좁은 의미의 중인(기술직) 계층에 대하여

의관, 역관 등의 기술직에 종사하고 특히 옛
부터 중촌(中村)에 거주하는 족속임을 통해
중인(中人)임을 알 수 있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
와 향리 및 기술관과 서열)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의.역.율.산).

기술직인 좁은 의미의 중인들은 주관적으로
는 사족(士族)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양반과 다름없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조선 후기에는 독특한 시문인 위향
문학(委巷文學)을 바탕으로 시사(詩社)를 조
직하여 문예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영·정조 때에 서열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서열)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 차례에 걸쳐 집단으
로 상소하여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
을 요구하였다(통청 운동). 그리하여 정조 때
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열 출신
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각기 능력
을 발휘할 수 있었고(정유서열허통절목,
1777), 더 나아가 1851(철종2년) 신해통공조
치로 사관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열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
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

서열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 중인에게도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주로 기술직에 종사
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
탕으로 1851년 대대적인 연합 상소 운동을
벌였으나, 그 세력이 미미하여 실패하였다.

㉠ 천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
비였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매
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처음에는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때, 그 소생 자녀도 자연
히 노비가 되는 제도(일천즉천)가 일반적으
로 시행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
로 삼는 법인 노비종모법(1731)이 실시되며
노비의 신분 상승이 활발해졌다.

㉡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은 사족(士族)이었다. 이들이 향촌 자치
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유향소였다. 유향
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25. 지도에 ● 표시된 지역을 답사하고자 한다. 답사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백제의 돌무지무덤, 석촌동 고분을 찾아서
- ㄴ.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 도산서원을 찾아서
- ㄷ.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하회 마을을 찾아서
- ㄹ.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의 산실, 다산 초당을 찾아서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안동 지역의 문화유산

우리나라의 탑은 대부분 석탑인데, 안동에 유난히도 전탑(벽돌탑)이 많다. 남한의 전체 전탑 5개 중 안동에 3개가 있고, 그 중 안동 신세동 법흥사지 7층 전탑(국보 16호, 8세기 건립)이 유명하다. 또한 고려 시대의 대형 석불인 안동 이천동 석불(마애여래 입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추정되는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 1363년 수리 기록), 2009년에 경주 양동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 마을과 하회탈, 병산탈. 위대한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 성리학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을 개축한 도산서원과 유성룡을 배향한 병산서원 등도 유명하다.

㉠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실학자 정약용은 천주교 박해인 신유박해(1801)에 연루되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었으나 해남 윤씨 윤규로의 도움으로 이 초당에 거주하며(1808~1818) 목민심서를 비롯한 위대한 실학의 저술이 이루어졌다.

26.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 도교는 세상을 속이는 이단이므로 소격서는 혁파되어야 합니다.
- 과거 출신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천거하여 시종직에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반정(反正)은 천명에 따라 인심에 순응한 것일뿐이니 정국공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정답: ③

* 조광조 일파(기묘) 사림의 개혁 주장

소격서 혁파, 천거(현량과), 훈구 공신의 위훈 삭제 주장 등을 통하여 조광조 일파 사림인 것을 알 수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사림이라 부른다. 이들은 훈구 세력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한 데 비해,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림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하였다. 김종직과 그 문인이 성종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

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성종을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사화(무오 사화, 갑자사화)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외척끼리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1545). 그러나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27.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선조 때에 문성공 이이가 수미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며, 이후에는 우의정 유성룡이 역시 미곡으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성취되지 못하였다. 무신년(1608)에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하여 토지에서 미곡을 거두었다. 먼저 경기에서 시작하였다. - 「만기요람」 -

- ① 공인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선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③ 방납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④ 세금의 부족분을 결각 등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 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을 수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답: ④

* 공납의 개혁 대동법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도 나타났고, 이이와 유성룡 등은 공물을 쌀로 거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708년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동법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농민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④ 조선 후기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군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28. (가)에 들어갈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은/는 중외의 군국 기무를 모두 관장한다. …… 도제조는 현임과 전임 의정이 겸하고, 제조는 정수가 없으며 전임으로 뽑아 임명한다. 이·호·예·병·형조 판서, 양국 대장, 양도 유수, 대제학은 직위에 따라 당연히 겸직한다. 4명은 유사당상이라 부르고 8명은 팔도 구관당상을 겸임한다. - 「속대전」 -

<보 기>

- ㄱ. 상피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 ㄴ. 고종 즉위 후 축소·폐지되었다.
- ㄷ. 임진왜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되었다.
- ㄹ. 세도 정치기 소수의 가문에서 고위직을 독점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조선 후기 최고 정무 기구 비변사

중종 때 3포왜란(1510, 지변사재상 소집)과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나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다 (1517년 설치, 1555년 정식 관청).

비변사는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점차 상설화 되고 구성원이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전·현 의정, 공조를 제외한 5조판서, 대제학, 5군영 대장, 4도유수), 그 기능도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의 제반 사무를 소수의 당상들이 회의하여 결정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세도정치기에는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고종 때에 흥선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의정부와 비변사의 한계를 규정,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에 이관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후 3군부(三軍府)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지되었다 (1865).

㉠ 비변사 구성원들은 주로 당상관(정3품 상계의 정무직 관료)이므로 겸직을 많이 하였다. 따라서 상피제가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았다.

29.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북학파의 사상으로 계승되었다.
- ② (가) - 사문난적으로 몰린 인물들이 제기하였다.
- ③ (나) - 소론의 사상적 연원이 되었다.
- ④ (나) - 이황에게 정통 주자학을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⑤ (가), (나) - 호론과 낙론 사이의 논쟁이다.

정답: ⑤

* 호락 논쟁

(가) 인물성이론(호론), (나) 인물성동론(낙론)

서인 중 남인에 대한 강경노선자(송시열)들인 노론은 이이의 학설을 절대시하고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명

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하였다.

그러나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충청도 노론인 호론(湖論)과, 같다고 보는(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서울, 경기 지역의 노론인 낙론(洛論) 사이의 호락 논쟁이 있었다.

후일 화이론(華夷論)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 보려는 배타적 입장이 깔려있는 호론은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었으며, 반대의 입장인 낙론은 청의 문물도 수용할 수 있다는 북학 사상으로 연결되었다.

②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도 17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윤희와 박세당이다. 이들은 주자의 학문 체계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서인(노론)의 공격을 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③ 서인 중 남인에 대한 온건노선자(윤증, 남구만)들인 소론은 절충적인 성격을 지닌 성혼의 사상을 계승하고 양명학과 노장 사상 등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 이해에 탄력성을 보였다.

④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중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관심을 끌어가던 양명학은 이황이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30.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도자기는 회화청 또는 토청이라 불리는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조선 전기에는 사치품으로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조선 후기 광주 분원에서 대량 생산되면서 널리 유행하였다.



정답: ①

* 조선 후기에 유행한 청화 백자

조선 후기에는 산업 부흥에 따라 공예가 크게 발전하였다. 자기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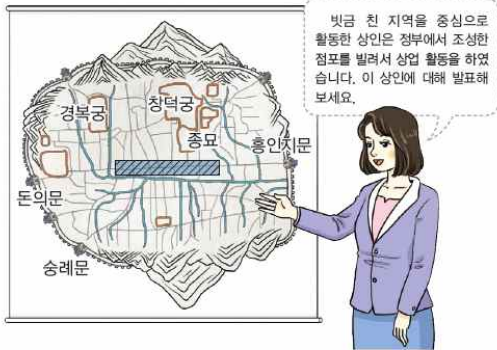
17세기 이후 청화 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웠는데, 제기와 문방구 등 생활 용품이 많았다

특히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무늬를 그림으로써 푸른빛의 무늬가 생기는 청화백자는 형태와 문양이 어울려 우리의 독특하고 순수한 세련미를 풍겼다.

이와 함께 서민들은 용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 ① 청화백자 매죽문호
- ② 청자 진사연화문 표형주자
- ③ 순백자 달항아리
- ④ 분청사기 조화어문 편병
- ⑤ 청자칠보투각향로

31.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경시서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 ② 통공 정책으로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 ③ 전국 주요 상업 지역에 송방을 설치하였습니다.
- ④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⑤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정답: ③

* 서울 도성의 상인 시전상인

서울의 가장 변화 지역인 종로통에 자리잡은 것을 통해 시전상인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 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종루, 칠패, 배오개(이현),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자 시전상인들은 국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는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1791, 신해통공) 이들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개항 이후에는 조청수륙무역장정의 체결로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이에 맞서 1890년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황국 중앙 총상회(1898) 등을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③ 조선 후기 최대의 사상(私商)인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송방)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32. 다음 농서가 편찬된 시기의 문화 동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하삼도의 관찰사가 자신의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농사 관행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올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초와 변효문이 체계를 갖추고 순서를 정리하여 만들어낸 농서였다. 이는 농사에 경험이 많은 농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 편찬되어 지방 관농관의 지침서가 되었다. 종자의 선택과 저장, 논밭갈이 뿐 아니라 벼·기장·조·수수 등의 재배법이 서술되어 있다.

—<보 기>—

- ㄱ. 국산 약재를 소개한 향약구급방이 편찬되었다.
- ㄴ. 조선의 고유한 자연을 표현한 진경 산수화가 유행하였다.
- ㄷ.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칠정산이 만들어졌다.
- ㄹ.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정리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농사직설이 편찬된 세종 대의 문화 동향

정초, 변효문 등이 지었고,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통해 ‘농사직설’임을 알 수 있다.

세종 대(1418~1450)에 정초, 변효문 등에 의해 편찬된 농서 농사직설(1429)은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양반도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높았다.

㉠ 고려 중기의 의학은 당·송 의학의 수준에 서한 걸음 나아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의학으로 발달함으로써 향약방이라는 고려의 독자적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리 하여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많은 의서가 편찬되었다.

13세기에 편찬된 향약구급방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학 서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되어 있다.

㉡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고, 이런 의식은 우리의 고유 정서와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으로 나타났다. 진경 산수화는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한 것이었다.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였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 조선 초기에는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와 의례에 관한 서적의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세종 때에는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1431~1434)를 편찬하였다.

33. 다음 자료와 공통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조선 국왕이 천주교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날이 조선국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수일 내로 조선 정복을 위해 출정할 것이다.
- 양이(洋夷)들이 우리 해안 방비를 엿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것은 유래가 오래 된 것이지 하루 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다. 이번에 강화도에 적들이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을 단단히 경계하도록 하였다.

- ① 윤요호 사건이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 ②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된 과정을 조사한다.
- ③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다.
- ④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배경을 분석한다.
- ⑤ 미국에 맞서 싸운 어재연 부대의 활동을 알아본다.

정답: ②

* 병인양요(1866)

‘천주교 신부 살해’, 강화도에 적의 침입’ 등의 말을 통해 ‘병인양요’임을 알 수 있다.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이 천주교를 탄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하여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

1866년 9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였다. 그 중의 한 부대는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이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한다(1866).

①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일종의 포함외교인 윤요호 사건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③ 두 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독일인 오페르트는 1868년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충남 덕산 소재)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 달아났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서양인을 오랑캐로 보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

④ 갑신정변(1884.12)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1885~1887).

⑤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을 빌미로 미군이 강화도로 침략해 왔다. 이에 어재연 등이 이끄는 부대는 광성보에서 미군을 막아 내었는데, 이를 신미양요라고 한다(1871).

34. 다음 자료와 발표된 이후에 나타난 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본 감사는 지금 너희들이 병기를 반납하는 것을 보고, 또한 못된 사람들이 소요하는 것을 몹시 미워하고 엄금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의 선량한 마음을 믿을 수 있다. 너희들이 각기 그 고을에서 성실하고 뜻이 있는 자를 뽑아 집강으로 삼되 적격하지 않은 자에게 집강을 맡겨 폐단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① 정부에 휴전을 제의하였다.
- ② 황룡촌에서 정부군에 맞서 싸웠다.
- ③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봉기하였다.
- ④ 백산에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⑤ 신임 군수의 무마책에 따라 스스로 해산하였다.

정답: ③

* 전주화약(1894.6) 이후의 동학농민운동

‘병기 반납’, ‘집강’ 등의 말을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전주화약 이후 활동을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부봉기: 1894.2.17>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이용태) 파견

<1차 봉기>: 1894.4.25 반봉건,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무장 기포 (4.25, 재봉기) → 고부 점령 → 각지 동학군 백산 집결(백산 봉기, 4대 강령) → 향토현(정읍)에서 감영군 격퇴, 황룡촌(장성) 전투에서 경군 격퇴 → 전주성 점령(5.31)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6.8~12) → 텐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6.7~12)
- 전주 화약 체결(6.11): 동학 농민군은 외국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6.11) → 일본의 궁성 침입(7.23)

<집강소 시기: 1894.6.11.~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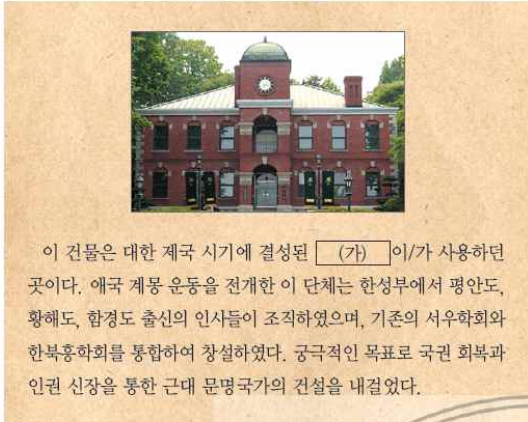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10.11.~12.31>, 남접+북접, 항일구국투쟁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 개혁강요 →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접(전봉준)·북접(손병희) 연합부대 형성 (논산에 대본영 설치)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2.11~18)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30)

35. (가)에 들어갈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정부에 헌의 6조를 건의하였다.
- ③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 ④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되었다.
- ⑤ 월보를 간행하는 등 교육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⑤

* 애국계몽운동 단체 서북학회

을사조약(1905) 이후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무수한 학회들이 설립되었다. 서울에 본부를 둔 대표적인 지역학회로는 평안도·황해도 지역의 서우학회(1906.10), 함경도 지역의 함북흥학회(1906.10), 이 두 학회를 통합한 서북학회(1908.1), 전라도 지역의 호남학회(1907.7), 경기·충청도 지역의 교남교육회(1908.3),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관동학회(1908.3) 등이 있었다. 이들 학회의 명칭은 교육단체였으나, 실제로는 사회·정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정치와 교육을 결합시킨 애국계몽운동단체였다.

이 중 안창호·이동휘·유동열 등이 주도한 서

북학회는 31개 지역에 지회를 설립하여 앞장서 지역대중을 계몽하고 유지들에게는 학교 설립을 권유하였다. 또한 애국신민 인재양성을 위한 대중계몽운동은 '서북학회월보'의 간행, 강연 토론, 청년지도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역시 좀 더 광범한 대중을 애국계몽운동에 참여케 하자는 목적과,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대중들로 하여금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아래 추진되었다.

①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일제에 진 빚을 갚자는 운동)은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1907).

②, ③ 아관 파천(1896.2) 이후 러시아의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1896.7~1898.12)는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또한 독립 협회는 자유 민권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여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여(1898.10),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렀으나 위기를 느낀 보수파의 모함(공화정 추구)과 황국협회의 난동으로 인해 해산되며 무산되었다

④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시작된 을미의병(1895)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은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조칙이 내려지자 스스로 해산하였다.

36. 다음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19□□년대 범죄 즉결사건 처벌 현황〉
(단위: 명)

연도	처벌 총 인원	징역·금고·구류	벌금·과료	태형
19○○	36,159	2,274	15,451	18,434
19○○	45,848	2,569	23,320	19,959
19○○	94,546	4,528	51,335	38,683
19○○	71,984	4,809	32,242	34,933

- ① 도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 ②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 ③ 교사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도록 강요하였다.
- ④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자 치안 유지법을 공포하였다.
- ⑤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 진흥 운동을 실시하였다.

정답: ③

* 1910년대(무단통치) 일제 통치

즉결과 태형이 실시된 것을 통해 1910년대(무단통치) 일제 통치임을 알 수 있다.

일제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현역 군인인 헌병 사령관을 중앙의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무 총감으로 임명하고, 전국 곳곳에 헌병 분대와 파출소, 경찰서와 주재소 등을

두어 한국인을 감시 억압하였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했으며, 즉결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선 태형령(1912)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로 1920년 폐지되었다.

그 밖에도 한국인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 일본군 2개 사단 병력이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되었다. 관리·교사들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녔다. 이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무단 통치의 모습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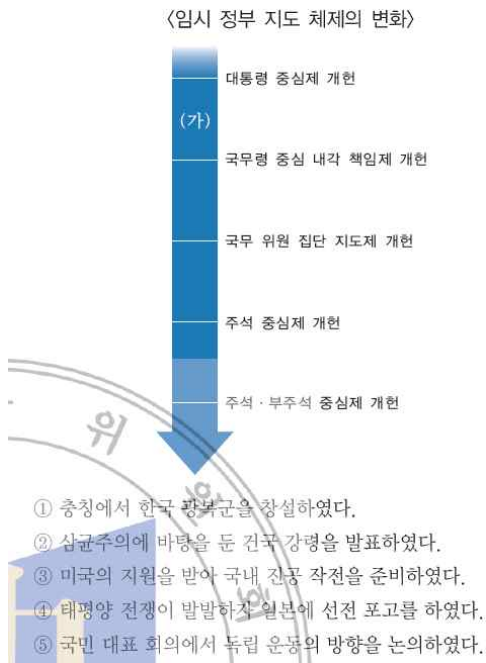
①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대에 도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를 하는 듯이 보이나, 실상은 자치 방식이 아닌 동화주의이고, 내선 융화로서 동화의 주요 대상은 중상류층 또는 지식인 계급이었다.

② 일제는 1907년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로 발행허가를 억제하고, 허가받은 정기간행물도 발매·반포 금지, 발행정지(정간), 발행금지(폐간)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을 통제하였다.

④ 치안유지법(1925~1945)은 일본제국과 식민지 전체에 적용되는 천황 통치 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로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를 탄압(사상 전향을 강요)하기 위한 법령이다.

⑤ 일제는 소작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키 위한 농촌 진흥 운동(1932년~1940년)을 전개하였다.

37. (가) 시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관련된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답: ⑤

* 임정의 시기별 활동

통합 임시정부(1919.9)는 대통령 중심제로 출발하였으나, 얼마 못가 주 노선인 외교 활동이 번번히 좌절되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 요청 문제가 계기가 되어 임시정부는 내분에 빠져들었다. 또한 교통국과 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의해 와해되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 정부는 국민 대표 회의(1923)를 소집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으나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하며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이 떠나면서 임시정부는 한동안 침체에 빠졌다. 이에 임시정부는 미주 지역의 독립 자금을 독점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곧 헌법을 고쳐 국무령제(1925.3)로 바꾸었다.

그러나 위상이 약해진 임시정부의 국무령에 주요 인물들이 나서지 않았고, 결국 김구가 1926년 말 취임하며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국무위원제)로 전환하여 이동녕과 함께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다(1927~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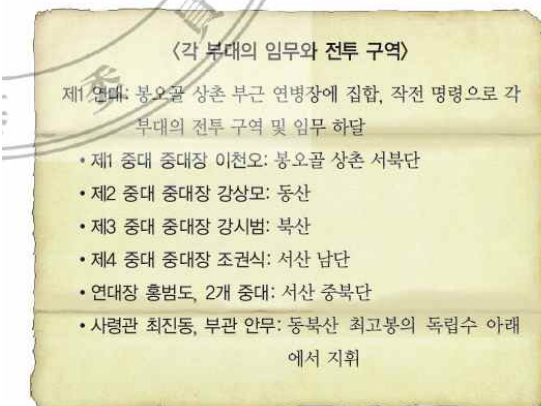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1932년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를 이루어내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김구는 김원봉이 주도하는 민족 혁명당의 임시정부의 해체 주장에 반대하며 한국 국민당을 창당하였다(1935).

한편 임시정부는 1932년의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상하이를 떠나 절강성 항저우로 이전하였다. 이 시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원조금과 미주 지역의 교민들이 보낸 애국 의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

중·일 전쟁 중 일본군이 항저우로 침략하자, 임시정부는 호남성 창사 등을 거쳐 1940년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사천성 충칭에 정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인사들은 단일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충칭에 정착하기 직전에 한국 독립당(조소앙), 한국 국민당(김구), 조선 혁명당(지청천)을 해체하고 한국 독립당을 새롭게 결성하였다.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령은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다.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긴 임시정부는 미주 지역의 의연금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정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고(1941.12)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의 대원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후 남은 세력들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고(1942), 한국 광복군은 증강된 병력을 바탕으로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진공작전(정진군)을 계획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1945.3).

3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중 연합 작전으로 거둔 승리였다.
- ②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이 참여하였다.
- ③ 만주에서 활약하던 조선 혁명군이 주도하였다.
- ④ 대한 독립군이 일본군을 기습하여 전과를 올렸다.
- ⑤ 조국 광복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개한 유격전이었다.

정답: ④

* 봉오동 전투(1920.6)

봉오골,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을 통해서 봉오동 대첩임을 알 수 있다.

1910년대부터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었던 만주 지역에는 3·1 운동 이후 많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넘어왔다. 이 지역에서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서로 군정서군이 결성되었고, 임시 정부 직속의 독립군 부대인 광복군 총영이 설치되었다.

독립군은 국내 진공 작전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일본 군대, 경찰,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였다. 1920년 6월, 두만강 북쪽의 삼둔자에서 박승길이 이끄는 신민단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인 후 화룡현 봉오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일본군이 신민단을 추격해오자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 대한 국민군 등은 일본군과 맞서 전투를 벌였다.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다수(150

여명 사살)를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어,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민중들의 반일 독립 의지를 크게 고양시켰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제는 훈춘 사건을 조작하여 약 2만 명의 일본군을 만주에 파견하여 토벌하러 들어갔으나 봉오동 전투의 주역들과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여 6일간에 걸친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1200여명 사살). 이를 청산리 대첩이라 한다(1920.10)

①, ③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서간도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② 임정 산하의 한국 광복군은 1945년 3월 미국 전략 사무국(O.S.S.)과 공동 작전을 합의하였다. 일본군 학도병 출신 광복군(김준엽, 장준하 등)을 중심으로 특수 공작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국내에 투입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현지 저항 세력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일제가 예상보다 일찍 항복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⑤ 만주에서 한중 연합전선적인 항일 부대인 동북 항일 연군의 한국인 간부들은 항일 통일 전선을 실현하고 인민 정부 수립을 목표로 오성륜 등은 조국 광복회를 창설하였다(1936). 조국 광복회는 국내의 함경도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1937년 항일연군 1로 2군 6사장 김일성의 주도 하에 보천보 전투 승리를 이루어냈다(1937).

39. 그래프와 관련된 일제의 경제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ㄱ. 미국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가 심화되었다.
 - 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 ㄷ. 지주가 수리 시설 개선 비용을 소작농에게 전가하였다.
 - ㄹ.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과 지형·자목 등이 조사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1920년대이고 수리조합 수의 증가를 통해 산미 증식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말,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그러자 일제는 식량과 공업 원료를 한국에서 값싸게 공급받고, 일본 기업의 한국 침투를 돕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였다.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수리 시설의 확대와 품종 교체, 화학 비료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지주는 쌀 수출과 수리시설 개선 비용을 소작농에게 전가시키며 다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소작농은 수리 조합 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 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결국 지주는 빠르게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나,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또한 한국의 농업은 쌀농사 중심의 단작형 농업구조로 재편되어 자연재해나 경제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변하였다.

㉠, ㉡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었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총독부는 지세부와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40. 다음 평가를 받은 사건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피고의 행위는 천황 행차 행렬을 침해한 대죄입니다. 따라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공판조서 -

○ 그가 수류탄을 휴대하고 일본 세관의 검사와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동경까지 잠입한 것은 대단한 기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백 번 천 번 추모하는 것도 그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 ○○○ 의사 추도사 -

- ① 김구에 의해 조직되었다.
- ② 만주 지린에서 결성되었다.
- ③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 ④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 ⑤ 김상옥, 나석주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답: ①

* 이봉창 의거와 한민애국단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민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1932.1)과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특히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 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②, ④, ⑤ 3·1 운동 이후 김원봉 등은 일제의 지배에 맞서 싸울 강력한 조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주 지린(길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1919). 의열단은 조선 총독부 고관, 매국노, 친일파 등의 처단과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각 경찰서 등 식민 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부산 경찰서(박재혁)를 시작으로 밀양 경찰서(1920, 최수봉), 종로 경찰서(1923, 김상옥), 조선 총독부(1921, 김익상), 도쿄의 일본 왕궁(1924, 김지섭),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감행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동포들에게는 항일 의식과 독립에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1923)’에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③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신민회(1907~1911)는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 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이었다. 신민회는 국내에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의 건설 등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였으나,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41. 밑줄 그은 '이 시기'의 농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종래 조선의 농민 운동이 치열하였다고는 하나 무리한 소작권이동과 높은 소작료 반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1930년경부터 쟁의 형태가 점차 전투적으로 변해갔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농민 야학, 강습소 등을 개설하여 계급적 교육을 하였다. 또한 농민 조합의 조직도 크게 달라져 청년부, 부인부, 유년부 같은 부문 단체를 조직하여 지주에 대한 투쟁이 정치 투쟁화 하는 경향이 생겼다. - 조선 총독부 경무국 비밀 보고서 -

- ① 신간회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 ② 압태도 소작 쟁의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 ③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 ④ 비합법적 농민 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 ⑤ 조선 노동 총동맹의 지원을 받아 전개되었다.

정답: ④

* 1930년대의 소작쟁의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과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농민의 생활이 몹시 궁핍해진 상황에서 일제는 지주를 옹호하며 소작농을 억압하는 정책까지 폈다. 이에 3·1 운동 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각성된 소작농들은 1920년대부터 일본인 지주나 조선인 지주에 대항하여 소작료 인하, 소작권 박탈 반대 등을 요구하는 소작 쟁의를 벌였다. 이 운동은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1923년에 있었던 전라남도 신안군 압태도 소작 쟁의는 한국인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시킨 대표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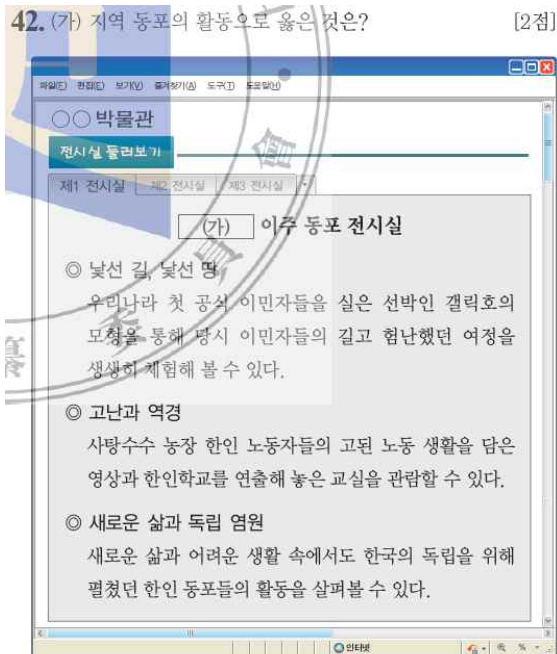
례이다. 한편 1924년 황해도 재령군 북물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소유의 농장 소작 쟁의는 소작농들이 쟁의 중에 동년 결성된 노동. 농민운동의 연합체인 조선 노동 총동맹에 가입하였고 탄압하는 일본 경찰에 대해 무장 투쟁까지 전개하였다.

1927년에는 조선 노동 총동맹인 분화되어 노동 운동 단체로는 조선 노동 총동맹이, 전국적인 소작 쟁의를 지도할 농민 운동 단체로서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지역 농민 단체는 1928년에 전국적으로 307개소나 만들어졌다. 소작 쟁의는 일본 경찰이 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민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노선 변화와 맞물려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의 합법적 농민 조합대신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 조합을 조직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좌절되었고, 1938년 총동원령 체제 이후에는 소멸되었다

① 1920 중반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인의 자치권을 얻자는 운동을 펼쳤지만(이광수 '민족의 경륜'), 비타협적 민족주의(완전독립론)자들은 조선민흥회(1926)를 중심으로 민족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사회주의자들도 치안유지법(1925)을 제정한 일제의 탄압과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우회 선언'(1926)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협동체인 신간회가 창립하게 되었으며(1927), 좌우 합작의 민족 운동 단체인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운동을 추진하였다.

③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 ①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②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 ③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독립 전쟁을 준비하였다.
- ④ 대한 광복회를 중심으로 독립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았다.
- ⑤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 미주 하와이 지역의 역사

미주 이주는 1902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하와이 농장주들이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대한 제국 정부에 한국 농민의 이민을 요청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농민은 정부의 해외 취업 알선을 받아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주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하와이에는 7000여 명의 동포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의 일부는 미국 본토, 멕시코, 쿠바 등지로 이주해 갔다.

하와이로 이민 간 동포는 사탕수수 농장일 뿐만 아니라, 철도 공사, 개간사업 등 고된 일을 하면서 인종 차별까지 당했다. 특히 결혼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불만이 높아지자, 농장주들의 요청으로 신랑과 신부의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정짓는 사진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주 교민들은 학교와 교회 등을 세우고, 대한인국민회 등의 자치 단체를 만들어 한인 사회를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가장 큰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한국광복군 창설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한편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으나,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승만이 군사활동보다 외교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데다 박용만이 실전에 참가하기 위해 극동 지역으로 떠나면서 조직 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해체되었다(1917).

①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독립군 기지화 추진. 간민회(자치조직), 중광단(→북로군정서, 대중교) 등 많은 독립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고,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의 민족 학교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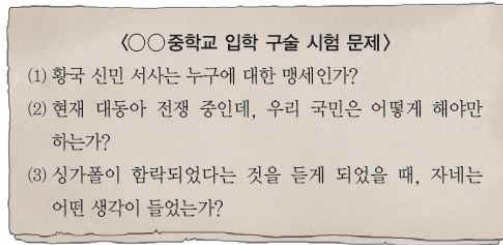
③ **연해주**: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단체들이 있었으며, 1937년 중일전쟁 직후 한국인의 일본 첩자활동을 우려한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아픔을 겪었다.

④ **대한 광복회**: 1915년 국내에서 박상진, 채기중 등이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단체.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임병찬의 독립 의군부(1912)와는 달리 복벽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정 수립을 지향하였다.

⑤ **일본**: 유학, 취업 등 목적 이주하였으며, 1919년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어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관동 대지진(1923): 재일 동포 6000여명 학살된 아픔이 있었다.

4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신사 참배에 동원된 학생
- ② 집회를 단속하는 헌병 경찰
- ③ 공출을 독려하는 애국반 단원
- ④ 지원병으로 전쟁터에 가는 청년
- ⑤ 뽕뻐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여성

정답: ②

* 민족말살기(1940년대)의 일제의 정책

대동아 전쟁(태평양 전쟁, 1941.12~1945.8),
싱가폴 함락(1942.2) 등을 통해서 1940년대
민족말살기임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일제는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
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았

다.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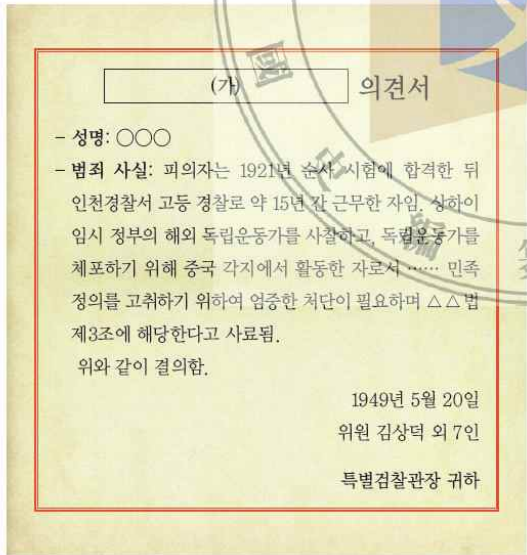
일제는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적 수탈로 일제는 강제 징용(1939년 제정, 1944년 전면 실시)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1944)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작업복 뽕뻐 유행),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② 1910년대에 일제는 무단 통치를 행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빼앗고, 독립 운동을 탄압하였다. 또, 일제는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우리 민족을 태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44. (가)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 ② 제헌 의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 ③ 법안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다.
- ④ 반민족 행위를 한 인물들을 조사하였다.
- ⑤ 활동을 주도하던 일부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

정답: ①

* 반민특위

친일 경찰을 처벌하는 내용을 통해 반민특위 임을 알 수 있다.

광복 직후부터 대다수의 국민과 정당 단체들은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의 처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열망에 따라 제헌 헌법은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이에 근거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쟁을 거듭한 끝에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1948. 9.). 그리고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위원장 김상덕).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7,000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선별하고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한 기업가 박흥식, 문필가 이광수, 종교인 최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경찰관 노덕술 등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김약수 등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연결되었다는 구실로 구속하였으며(국회 프락치 사건),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법안 개정으로 1949년 8월 말 시효가 단축되어 만료됨으로써 해체되었다.

반민특위는 682건을 조사하여 221건을 기소하고 40건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된 자는 한 명도 없었고, 투옥된 자들도 대부분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자는 거의 없었다. 친일파 청산은 후일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45. 다음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 현황〉

연도 구분	1955	1956	1957	1958	1959
도입 실적 (백만 달러)	28.3	51.7	48.2	39.7	27.0
도입 품목	원사, 연초	쌀, 소맥, 대맥, 원사, 낙농품	쌀, 소맥, 대맥	소맥, 대맥, 수수, 당밀, 옥수수	소맥, 원사, 옥수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경제 반세기 정책 자료집」

- ① 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특수를 누렸다.
- ②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았다.
- ③ 삼백 산업 중심의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④ 저금리·저유가·저달러로 물가가 안정되었다.
- 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들어왔다.

정답: ③

* 1950년대 미국의 원조 경제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도로, 철도 등 물류 교통 시설이 파괴되었고, 제조업도 생산 시설의 절반이 파괴될 정도였다.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결국, 미국의 원조로 미국산 밀과 면화 등이 유입되면서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제분, 제당, 방직 공업 등 소위 삼백 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지만 철강, 기계 등의 생산재 공업은 저조하였다. 또한 밀과 면화 농업이 몰락하는 등 토착 농업의 발전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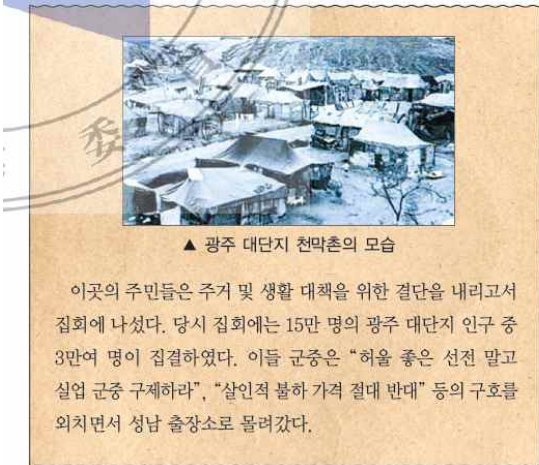
① 1960년대 박정희 정권기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기에는 한·일 협정(1965) 체결의 대가로 들어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1965~1973)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1997년 김영삼 정권 말기에 있었던 외환 위기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극복한 경험이 있다.

④ 전두환 정권기인 19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는 안정되었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아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한 고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⑤ 김영삼 정권기인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발효되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46. 다음 자료의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요구를 분석한다.
- ② 핵 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본다.
- ③ 경제 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를 알아본다.
- ④ 토지 조사 사업이 농촌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 ⑤ 일제 강점기 토막민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조사한다.

정답: ③

* 광주 대단지 사건(1971)

광주 대단지(오늘날 성남)는 서울시의 빈민가 정비 및 철거민 이주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도시로 철거민들에게 토지 분양과 일터를 약속하고 이주시켰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투기꾼에 의한 불법전매의 횡행,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일방적 행정행위(비싼 분양가 등)에 항거하여 1971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기도 광주 시(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개발 지역 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령하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결국 정부는 주민대표에게 정식 사과하고 이주민들의 화를 달랬으며, 서울시장이 방송

담화를 통해 이주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진 해산하며 끝이 났다.

이 사건은 1960년대의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업의 해체와 실업문제 등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된 도시빈민문제의 본질을 드러낸 의의가 있다.

①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사회 민주화와 함께 노동 운동이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이제까지 억눌려왔던 노동계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노동 쟁의 또한 크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 단체 결성이 활발해졌다.

② 1978년 고리 원전이 가동되고 1984년부터 핵 폐기장 건설을 논의했으나 님비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곳이 거부를 하다, 결국 2005년 지역 지원금을 준다는 전제하에 경주로 선정되었다.

④ 1910년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⑤ 일제시대에 들어 도시에 사람이 몰리면서 이전에 볼 수 없던 주택이 나타났다. 1920년대 이후에 상류층의 문화 주택, 중류층의 개량 한옥, 중·하류층의 영단 주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서울 변두리에는 빈민이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토막살이를 하는 사람은 1937년 서울(경성부) 총인구 70만여 명 중에서 15,000여 명에 달하였다.

47.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별을 보며 바느질 솜씨를 좋게 해달라고 빌었다.
- ② 팔죽을 만들어 부엌, 문짝, 대문짝 기둥에 뿌렸다.
- ③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에 차례를 지냈다.
- ④ 귀밝이술이라 하여 데우지 않은 술을 한 잔 마셨다.
- ⑤ 남자는 씨름 경기를 벌이고 여자는 그네뛰기를 하였다.

정답: ①

* 세시 풍속 칠석(七夕)

여자(직녀)가 소를 끄는 남자(견우)를 은하수에서 배웅하는 것을 통해 칠월 칠석을 알 수 있다.

칠석(七夕)은 음력 7월 7일로 세시 명절의 하나이다. 헤어져 있던 견우(牽牛: 목동)와 직녀(織女: 베짜는 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한다.

이 때는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폭의(曝衣)와 폭서(曝書) 풍속이 있었다. 여름 장마철에 장롱속의 옷가지와 책장의 책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끼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여인들이 직녀성에 바느질 솜씨를 비는 걸교(乞巧) 풍속이 있었다.

칠석음식으로는 밀전병을 만들어 먹고 칠석 놀이라 하여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무로 밤이 깊도록 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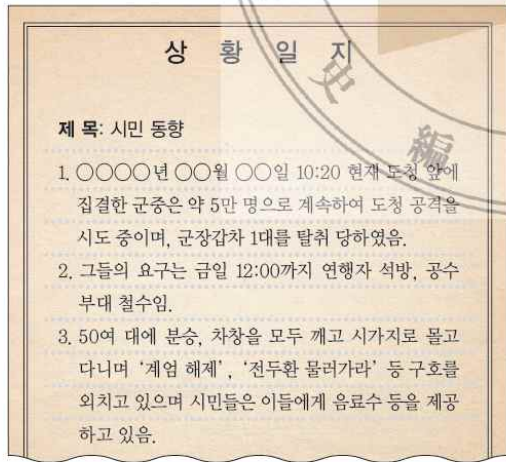
② 동지(冬至):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대설과 소한 사이이다.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원단(설날)과 함께 으뜸되는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을 베풀었으며,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를 파견하였다. 또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국왕에게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민가에서는 붉은 팔죽을 쑤어 먹고 집안 곳곳에 뿌렸다.

③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 8월은 한해 농사를 수확하고 마무리하는 풍성한 시기로 명절 중 으뜸이다.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상을 차려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④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한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로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오곡밥을 먹고, 건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일 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⑤ 단오: 음력 5월 5일. 삼한 시대의 수릿날에 기원하여 한해 농사의 풍성을 기원한다 단오의 풍속 및 행사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는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 등이 행해졌다.

48.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유신 체제에 저항하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일어났다.
- ②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③ 한·일 회담 반대에서 더 나아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 ④ 독재 정권을 타도하였으나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 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②

*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2011년 5월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①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이 야당인 신민당사 일어나자, 여당과 정부는 야당 당수인 김영삼을 국회 제명하였다. 이는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의 반유신 투쟁을 야기하고, 집권층 내에서의 강온 진압 대립 속에 10.26 사건으로 이어지며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③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정부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여 이를 억제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④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원인으로 일어난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장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계파간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에 시달리다 박정희 군부 세력의 정변(1961.5.16)으로 1년도 안되어 붕괴되어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된다.

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49. 다음 주장이 제기된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우리의 주장〉

- 전근대적인 가족법을 개정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남녀 평등권을 쟁취하자.
- 여성 노동자의 모성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8시간 노동제와 최저 생계비 환경의 개선과 모성 보호를 위한 제 정책을 수립하라.
- 취업·승진·퇴직에서의 여성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 1987년 3월 8일, 제3회 한국여성대회 —

〈보 기〉

- ㉠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 통문이 발표되었다.
- ㉡ 호주 중심의 호적 대신 가족 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졌다.
- ㉢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인 여성부가 출범하였다.
- ㉣ 국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었다.

① ㉠, ㉡
④ ㉡, ㉣

② ㉠, ㉢
⑤ ㉢, ㉣

③ ㉡, ㉣

정답: ③

* 1987년 이후의 여성운동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과 활동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여성의 사무직·전문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7년 12월 남녀 고용 평등법(2007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가족법이 개정되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과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2001년 정부 부처 내에 여성부가 설치되고 ‘21세기 남녀평등 현장’이 발표되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 대신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져 가정 내 여성의 지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 1898년 9월1일 서울의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찬양회가 조직되어 우리 나라 최초의 여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찬양회는 독립 신문과 황성 신문에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 등 천부인권에 기반을 둔 평등권을 주장하는 ‘여권 통문’을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의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인 1948년 5.10 총선거에서부터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두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임영신)

5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개성 공단 사업을 추진하였어.
- ②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어.
- ③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어.
- ④ 금강산 관광 사업이 본격화되었어.
- 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났어.

정답: ②

* 남북 기본합의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시대(1990년대 초)가 배경인 것을 통해, 이 남북 간의 합의문서는 1991년 12월의 '남북기

본합의서'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노태우 정권(1988~1993)은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199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①, ④, 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상 회담(김대중-김정일)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1998)과 개성공단 건설(2004), 경의선 연결(200~2002),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③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